

# “가을의 전설 보자” 7시간 전 ‘입장전쟁’

### 12년 숙원 'V10' 응원 열기... 불굴의 호남정신 보여줘

### 암표도 성행...1만 5천원짜리 일반석 15만원에 팔려

과연 최고의 '가을 잔치' 다웠다.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린 광주 무등경기장은 구름처럼 몰려든 관중으로 온종일 발디딜 틈 없이 붐볐다. 티켓장구 앞에서는 표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몸싸움이 벌어졌다. 텐트족도 눈에 띄었다. 암표상들은 치솟는 풋값에 콧노래를 불렀다. 관중들이 들고온 수만개의 노란 막대풍선과 응원수건, 대형 현수막이 경기장 분위기를 한껏 달궜다.

◇구름 관중=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린 16일 오전 11시 광주 무등경기장. 경기 시작 7시간 전부터 입장권 매표소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수는 점차 늘어갔다. 현장에서 판매하는 입장권을 사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문 행렬은 수백m까지 이어졌다.

텐트를 치고 밤을 샌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돗자리를 깔 채 술과 음식을 먹으며 대기하는 관중도 보였다. 관중들은 저마다 전문가를 뺨치는 전망 속에서 대부분 기아의 승리를 점쳤다. 1전장의 표에 대한 현장 판매가 시작되자 매표소 앞은 순식간에 전쟁

터가 됐다. 삼시간에 줄이 무너지면서 표를 사려는 사람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현장 판매는 20여 분만에 끝났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이다. 표를 구하지 못한 30여 명의 관중들은 3루 관중석 입구로 무작정 향했다. '무단 출입'을 하려던 이들은 경찰이 입구를 막아서며 저지하자 캔 맥주·과자·음료수 등을 던지며 거칠게 항의했다.

◇암표상 등장=이날 오후 3시40분께 현장 판매가 끝나자 암표상들은 본격적으로 판매에 나섰다. 좀 전까지 3루 관중석에서 소란을 피우던 팬들도 하나 둘씩 어디론가 사라졌다. 암표상을 찾아 발길을 돌린 것이다. 그동안 은밀히 이뤄지던 암표 거래가 이날은 아예 드러나고 이뤄졌다.

암표상들은 매표소 주변에 서성이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거래를 제의했다. 매표소 앞에서 취재를 하던 기자에게도 세 번이나 표를 사줬느냐는 제안이 들어왔다. "오늘은 가격이 10만 원선까지 오를테니



표구하기 꼬리 문 행렬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린 16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경기 시작 6시간 전부터 현장 표를 구하려는 팬들이 몰렸다. 현장에서 판매하는 입장권을 사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문 행렬은 수백m까지 이어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미리 사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충고도 곁들였다.

1만5천 원짜리 일반석 입장권은 3만 원부터 거래되기 시작했고, 야구팬들이 계속 몰려들자 가격은 10여 분만에 2만 원이 올라 5만 원에 거래됐다. 경기 시작 20분 전 급기야 15만 원에까지 거래됐다. 경찰관도 눈에 띄었지만 단속 의지는 없는 듯 보였다.

◇'기아 V10' 응원 열기 고조=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경기장은 구름처럼 몰려든 관중으로 가득 찼다. 관중석에서는 '최강 기아 타이거즈 V10'이라고 적힌 가로 70cm, 세로 30cm의 황금빛 수건 물결이 일렁였다. 이종범·최희섭·김성현 등 기아 선수들의 원에까지 거래됐다. 경찰관도 눈에 띄었지만 단속 의지는 없는 듯 보였다.

관중들은 각자 쟁쟁한 막대풍선으로 선수들의 사기 충전에 힘을 보탤다. 그야말로 'V10'을 향한 열기로 가득 찼다.

기아 선수들이 안타를 칠 때마다 관중들은 서로 열광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관중들은 경기 내내 마음을 졸였다. 기아 선수들의 기쁨, 그리고 환호. 경기가 치러진 3시간40분 동안 관중들은 찬양과 지옥을 오가며 열띤 응원을 보냈다.

이날 경기는 기아의 5-3 역전승. 경기 끝나자 관중들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이근선(32·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역시 최고의 '가을 잔치' 다웠다. 기아가 먼저 1승을 챙겨 너무 기분이 좋다"며 "어렵게 구한 표를 입장했는데, 보람이 있다. 관중들의 바람대로 올해 기아가 꼭 'V10'을 달성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 나원침 (7929) 김종두



## 내일 산의 날

### 국유 자연휴양림 무료개방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심부근)는 제8회 '산의 날'인 18일 전국 36개 국유 자연휴양림을 무료 개방한다.

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날 국유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 숙박 및 야영 시설물 이용료는 내야 한다.

무료 개방되는 국유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www.hu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 북이면 방장산자연휴양림(061-394-5523)에서는 17일 '숲속 영화관' 행사를 열어 '슈퍼맨 리턴즈' 등을 상영한다.

지난 2002년 '세계 산의 해' 선정에 계기로 우리나라도 같은 해에 10월 18일(十+八=木)을 '산의 날'로 정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 대법원 상향 본격 논의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각종 범죄의 형량 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 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일지 본격 논의한다.

대법 양형위(위원장 이규홍)는 26일 오후 2시 '아동성범죄 양형기준의 점검'을 안건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16일 밝혔다.

임시회의에서는 아동성범죄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이 적절하지 검토하고 기준 수정이 필요하지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슈주' 강인 이번엔 음주행소니 물의

○최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24)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자수.

○16일 서울 강남경찰에 따르면 강인이 지난 15일 새벽 3시1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시 강남구 차병원사거리에서 활동역 방향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으나 6시간 뒤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6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1%의 수치를 보였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법인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할 경우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6%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한 점은 정상 참작이 가능하지만,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났기 때문에 음주행소니로 봐야 한다"고 설명. /연합뉴스

## 전남교육청 개인정보유출

# 올 상반기 1,373건이나

### 교과기술위 국감 지적

전남도교육청에서 올 상반기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무려 1천3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16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상반기에만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1천37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해 유출된 916건보다 450여건 많은 것으로 지난 2007년 하반기 684건까지 더하면 무려 2천973건에 이른다.

경기교육청이 2천3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천교육청 2천293건, 전남교육청 순이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유출 건수는 6천858건으로 경기, 인천, 전남 등 3개 교육청이 88%를 차지했다.

황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몇 배 증가하고 감소한 문제가 아니라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징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관련자 문책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40분    해질 17시 55분    달맞이 05시 24분    달잠 16시 59분

#### 비온뒤 쌀쌀해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온뒤 개겠다.

지역	기온
광주	흐리고 비 13/21℃
목포	흐리고 비 14/20℃
여수	흐리고 비 15/20℃
완도	흐리고 비 15/21℃
구례	흐리고 비 13/21℃
해남	흐리고 비 15/21℃
장흥	흐리고 비 14/21℃
고흥	흐리고 비 13/21℃
순천	흐리고 비 13/22℃
영광	흐리고 비 13/21℃
진도	흐리고 비 15/21℃
전주	흐리고 비 13/20℃
남원	흐리고 비 10/20℃
홍산도	흐리고 비 16/20℃

지역	기온	비
서울	서~북서 2.0~3.0m	☀
부산	서~북서 2.0~4.0m	☀
대구	남서~서 1.5~2.5m	☀
대전	서~북서 2.0~4.0m	☀
충청	서~북서 2.0~4.0m	☀
경북	서~북서 2.0~4.0m	☀
경남	서~북서 2.0~4.0m	☀
충남	서~북서 2.0~4.0m	☀
충북	서~북서 2.0~4.0m	☀
강원	서~북서 2.0~4.0m	☀
제주	서~북서 2.0~4.0m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11/23	12/20	10/20	11/21	11/22	11/22

## “무릎에 앉아봐” 강제키스... 엉덩이·가슴 툭툭

# 광주 C여고 교사, 학생 성추행

광주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다리와 가슴 등 몸을 더듬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성추행'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광주 C여고 학생과 학부모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 A(47)씨가 지난 10월 오후 5시10분께 자신이 담임인 3학년 학생 B양을 남자교사 휴게실로 유인해 어깨를 주무르게 한 뒤 무릎 위에 앉히고, 허를 입술에 갖다 대기도 했다는 것.

B양은 "담임이 자율학습 시간에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복도로 불러내 어깨를 주무르게 하더니 아무말도 않고 1층에 있는 남자교사 휴게실로 들어갔다"면서 "따라오라는

뜻으로 알고 뒤따라 갔더니, 어깨를 또 다시 주무르라고 한 뒤 '내 딸보다 더 잘 주무른다. 무릎위에 앉아봐'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B양은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허를 입술에 갖다대고, 허벅지를 만졌다"며 "너무 억울하고 수치스러워 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 학교 일부 학생들은 B양만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같은 반 친구인 C양은 "담임이 치마교복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치마가 위로 올라가는 '엎드려 뻗쳐' 체벌을 자주 시킨다. 그러곤 뒤에서 지켜본다"면서 "아이들의 엉덩이나 가슴을 툭툭 건드리기도 한다"

고 했다.

또 다른 학생은 "아이들이 담임이 교실에 들어오면 눈 조차 마주치지 않으려 한다"면서 "하루는 의자 위에서 양반다리를 한 뒤 방석으로 다리를 덮고 있는데, 책상 밑으로 머리를 숙여 방석을 빼내었다. 담임이 치마속을 모두 봤을거라는 생각이 들어 수치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전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B양의 아버지는 "그동안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힘든 농사일도 버텼었는데, 착하고 공부(중상위권 성적)밖에 몰랐던 딸이 학교에도 가기 싫다고 한다"면서 "수능을 눈앞 둔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가 스승의 자격이 있는 지 되묻고 싶다"고

울먹었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당시 복도 끝에서 야단을 쳤을 뿐, 학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학교는 올 초 '치마체벌(치마를 벗고 교실을 돌게 함)'로 말썽을 빚었다. 이 사건으로 해당 학교장은 주의조치를, 교사 두 명은 감봉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학교 교장은 "불미스런 일이 자주 발생해 죄송하다. A교사에게 경위서를 제출토록 했고, 사실 여부를 떠나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사과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시교육청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깊어가는 가을

### 야구장 가는길 뚝 두툼하게

2009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2차전 경기가 열리는 17일 광주·전남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예상되나 경기장은 두툼한 복장으로 경기장을 방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17일 광주·전남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으며,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다소 떨어져 쌀쌀할 것"이라고 16일 예보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20mm. 아침 최저기온은 12~16도, 낮 최고기온은 19~20도로 비교적 선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일인 18일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4도, 낮 최고기온은 21~22도로 날들이 하기에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기자 khh@

## 전남대 교수 정년보장심사 '하나마나'

### 최근 5년 대상자 169명 중 1명만 탈락

전남대가 최근 5년간 정년을 보장하는 심사에서 사실상 전원을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전남대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교수 심사 대상자 교원 169명 중 외국인 1명을 제외한 168명이 통과됐다. 연도별로 2005년 26명, 2006년 16명, 2007년 50명, 지난해 30명이 전원 통과됐으며 올해는 47명 중 1명만 탈락했다.

정교수 승진 비율도 2005년 95.5%, 2006년 93.3%, 2007년과 지난해 각각 94.3%와 90.9%로 5년 연속 90%대를 넘었다. 이는 서울대 정교수 승진 비율이 2006년 72.8%에서

지난해 53.8%로 겨우 절반에 턱걸이한 것과 대비된다.

더욱이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 교수 승진율과 정년 보장 심사 통과율은 40~60%대에 불과하다. 황 의원은

/재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대 6.28대1 조선대 13.1대1

### 의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

전남대와 조선대는 2010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 경쟁률이 각 6.28대 1과 13.1대 1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대는 특별전형 19명, 일반전형

31명 등 50명 모집에 314명이 지원했다. 올 경쟁률은 지난해 4.7대 1보다 크게 높아졌다. 조선대는 일반전형 52명, 특별전형 22명 등 74명 모집에 687명이 지원, 9.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7대 1이었다.

/재희중기자 chae@kwangju.co.kr